



한 혜연  
연속교육팀

# 첫눈

창밖에서 올해 첫눈의 눈송이가 갈광질광 바람에 불려 다닌다. 금세 바람이 잦아들자 그 내리는 모습이 아이가 차낸 이불을 찬찬히 챙겨 따뜻하게 덮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다.

첫눈의 기억은 매년 달랐던 것 같다. 여행지에서 맞은 첫눈은 여행의 기쁨에 녹아들어 반짝였고, 대학 때 내린 첫눈은 캠퍼스의 낭만을 머금고 대학생들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언젠가 출근시간에 내린 베이징의 첫눈은 질척대는 눈처럼 온 도시를 교통마비로 이끌었다.

그 수많은 첫눈 내리는 날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2004년 상하이의 눈 내리던 날이다. 상하이는 거의 눈이 내리지 않는다. 겨울에도 녹음이 푸르고 꽃이 피어 비록 습기 찬 날씨에 몸을 잔뜩 움크리게 되기는 하지만 겨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평평 내리는 눈에 비하게 되어 가을의 연장섬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렇게 어정쩡한 겨울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에 우산을 챙기고 등곳길에 나서자 푸른 나뭇잎들이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익숙한 겨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연이은 수업과 사이사이의 쉬는 시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지나는데 구나 하고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홀연 비가 눈이 되어 내렸다. 양이 적어 쌓이지도 포슬포슬 밟히지도 않았지만 슬쩍슬쩍 간보듯 내리는 눈발에 꼭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은 것만 같았다. 그 감질나는 하늘 아래서 온 교실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들이 설 틈 없이 뛰어다녔다. 아마 학교 건물 위에서 본다면 운동장은 바글바글 까만 머리통들로 가득 차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맨손으로 눈을 받아 보기도 하고 입을 벌려 먹어보기도 하고 푸른 나뭇잎

을 따서 그 좁은 잎새 사이로 눈을 모으기도 하며 온갖 장난을 쳤다. 신기루처럼 하루 만에 눈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강렬해서 그 후에도 친구들과 며칠 씩이나 눈 오던 날 이야기를 하곤 했다.

문명과 떨어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조미료로 잔뜩 맛을 낸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혀가 것처럼 강한 맛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해 첫눈은 나에게 원주민이 먹은 첫 조미료 음식처럼 강렬했다. 하지만 그 후 겨울마다 눈을 볼 수 있게 된 나는 조미료 음식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현대인처럼 눈을 무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눈이 내리면 더욱 짝 막힐 교통이 먼저 떠올라 미간이 찌푸려지곤 했다. 오늘까지도 잊고 있었지만, 그 날 상하이의 눈을 떠올리면 눈이 내리는 그 자체로도 즐겁고 감동적인데도 말이다. 소중한 것이 당연해지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잊고 만다. 눈 내리는 날과 마찬가지로 삶의 소중함도 잊혀지는 것 같다. 매일 주어지는 삶이 당연해지면서 소중한 하루하루가 그저 그런 오늘날로 빠르게 흘러간다.

이 글을 쓰면서, 나의 어제에게 물어보았다. 눈이 온다고 짜증내고 비가 온다고 우울해 하지는 않았는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소중한 하루를 온전히 망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물쭈물 답을 못하는 어제를 위로하며 내일은 어제와 다른 답을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지금 창밖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새로운 직장에 대한 설렘을 담고 상하이의 그것처럼 생경하고도 아름다워 보인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첫눈 오는 날처럼 소중하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바란다. 🍂